

청학동 서당에서 거주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유 나¹⁾

조 한 익²⁾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거주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4명의 남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면담, 참여관찰, 현장노트, 연구일지 등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은 시간적, 공간적, 장소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따라서 탐색하였다. 연구수행절차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전환하기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풀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경험의 의미들을 도출한 결과 부러움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생활하기, 서당별로 나뉘는 또래집단, 위기의 학생들이 모인 공간에서 균형잡기,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해되는 학교 선생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한 교육적,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청학동 서당, 학교생활, 내러티브 탐구

1)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는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지치고 힘들어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기 어려운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 맡아서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시설들을 찾는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경우 자녀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새 학교를 찾는다(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Fincham, Grych, & Osborne, 1994).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적성장을 비롯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로운 구성원을 길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시제도의 문제로 인해 학교는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청소년들은 성적주의가 만연한 교육 풍조 속에서 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며 학교 규칙이나 규율에 위반되는 행동에 대해 처벌을 원칙으

로 지도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에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 밖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장애경, 이지연, 2010; Laird, Petti, Dodge, & Bates, 1999). 신학기가 시작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문제아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거나 퇴학을 시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전학을 권고받거나 학업부진 등으로 교육시스템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안학교나 소규모 농촌학교 등 도외 지역으로 전학을 반복하다가 청학동 서당까지 찾아온다.

청학동 서당은 전통서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훈육과 예법을 통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불리고 있다. 서당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인성·예절교육을 중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서당 인근의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서당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대체로 학과 공부를 비롯한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과 같은 한문 학습과 예절교육, 서예, 다도, 미술, 축구교실과 같은 기타 예체능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지리산에 인접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주말에는 자연 체험학습과 더불어 타지로 나가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거나 개인 정비 시간을 갖는다. 또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가나 외박이 가능하며, 방학이나 연휴가 되면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당에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청학동 서당은 도시지역에 비해 물리적, 사

회적으로 좁은 환경적 조건을 가진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도시의 청소년들에 비해 생활권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문화·여가의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사교육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교 교육에 의지하는 형태를 보인다. 박정희의 연구(2008)에 따르면, 읍·면 지역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생활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학력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적·문화적 결핍을 직면하는 현상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족과 떨어져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리산에 위치한 청학동 서당은 연구자인 나의 가정이자 일터이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지는 어언 9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울타리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문제들이 곧 나의 일이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감이 물밀듯이 엄습해 오기도 하였다.

학교 교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나는 아이들의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서당에서 꼭 잘 지도하여 학교에 보내겠다고 선생님과 약속을 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소한 일들로 문제를 일으키면 한창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릴 만큼 사건의 강도가 강하고 무겁다면

아이들의 일이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사님으로서의 역할과 부모 대리인 및 지역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관계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면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절차적인 일들은 둘째 치더라도 당사자인 아이들 앞에 놓이게 될 일들이 걱정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 앞에 펼쳐질 상황은 볼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기억되고 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가서 여학생 여럿이 모여 장소를 무단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일, 쉬는 시간에 학교 근처에 있는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도둑으로 몰린 일, 쉬는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교무실에 간 일, 교사에게 대들거나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었던 일 등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탈 행동들은 매우 다양했다. 가정에서 벗어나 서당의 규칙과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답답함을 해소하고 불만을 표출하고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였고, 학교생활에서도 마음이 맞는 아이들이 모여 함께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하였으므로 서당을 비롯하여 학교나 또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행위의 주체가 되는 아이들의 경우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나 등교 정지, 심지어 전학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서

당에서의 퇴소는 물론이고 위탁 교육을 희망했던 아이들의 학부모들 역시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기 일쑤였다. 또한, 교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뿐만 아니라 전교의 재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더군다나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이러한 일들로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는 물론이고 서당에서도 아이들이 적응에 곤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평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서당에 돌아오면 나는 꼭 불일이 없더라도 아이들의 숙소로 향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화가 나거나 불편한 일은 없었는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라는 사람이 아이들과 온전히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산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아이들은 서당 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등 이들과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할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특히나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학급의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삶에 많은 의미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학동 서

당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던데요” 언제나 꼬리표처럼 내 뒤를 따라다니는 이야기다. 들을 때마다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지만, 부정하자니 일부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는 존재한다.

아이들이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던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고 편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도시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교사나 교우 간의 갈등 등 개인이 가진 이야기들이 결코 밝고 희망적이지 만은 않았다. 이들은 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학교와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가정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학교는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 타지에서 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시선으로 학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동안 청학동 서당과 관련한 연구는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들(김태환, 2004; 정찬호, 2017), 서당교육과 현대교육을 연계한 연구들(서석훈, 2009; 원준수, 2012), 청학동 서당에 대한 실태연구(공환, 2005; 곽재용, 2010) 등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청학동 서당에

서 생활하는 남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김유나, 조한익, 2020)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당교육과 생활을 통해서 가족이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서당공부를 통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열리는 마음을 가지며,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학생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답답하지만 일탈이 줄어들고, 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남학생들이 청학동에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2000)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내러티브로 풀어내고,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경험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을 대신하여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나타나는 학교에서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개인 및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관계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는 곧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Denzin & Lincoln, 2018; Patton, 2005)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17세 미만의 청소년, 둘째, 중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청소년, 셋째, 내러티브 탐구에 필요한 장기적인 면담이 가능한 청소년, 넷째,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충분한 청소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다. 청학동 서당에는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이 분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함에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가명)	성별	연령	재학 기간	전학 온 계기
박여림	남	14	8개월	학교부적응
이강한	남	15	1년 10개월	학교부적응
최인기	남	16	2년 10개월	비행
김성실	남	16	2년 10개월	가정불화

있어 언어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유형이 상이하고 장기적인 면담을 진행하기에는 학업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참여를 승낙한 총 4명의 중학교 남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는 전교생 70명 미만의 농촌 소규모 공립 단설중학교로, 전체 학생의 85% 이상이 청학동 서당에서 기숙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면민이 주도하여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서당에서 학교를 다니는 타지역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교내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농·산촌으로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여 학생 간의 학력 편차가 심하고, 청학동 서당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에서 학적 변동이 잦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유입된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이나 비행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생활지도가 어렵고 인성교육이 필요하여 교사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시설 면에서 살펴보면 교내 특별실이 부족하여 특기적성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급식소가 없어 인근 초등학교로 가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학교 외부환경에서 학원이나, 도서관, 청소년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자는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한 지가 어언 9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한 사안들이 익숙하였으며, 그간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하고 연구참여자와도 신뢰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연구주체에 적합한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로, 연구자는 현장에 몰입하여 연구참여자와 사랑에 빠져야 한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들은 학년은 각기 달랐지만 같은 서당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서당에서 주어진 환경조건이나 일상생활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였고, 연구자와도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학교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여자들 개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들의 경험적 내러티브가 이후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으로 들어가 함께 몰입하며 이야기의 장소에 머물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남학생들은 연구참여에 동의할 당시 녹음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참여자들과 직접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녹음한 자료들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녹음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초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3회 이상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회당 6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로는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청학동 서당 내 학습실을 이용하였으며, 하교 후 저녁시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규칙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중학교에 방문하거나 중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내용으로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들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는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현장노트, 자전적 글쓰기, 저널, 편지, 대화, 면담, 문서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경험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가이드는 크게 중학교에서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문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 전체의 배경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이 전체의 맥락을 흐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유도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면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대화내용에 대한 느낀 점이나 의문점을 바탕으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면담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대화록을 비롯하여 연구참여자들을 관찰하며 기록한 현장 노트 그리고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연구

자 저널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총 170매의 분량이 되었으며, 연구자 일지 3권을 비롯하여 현장노트 1권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은 복잡하고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으로, 연구의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이 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나선형적 절차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절차에서 전사된 자료와 저널을 통해 수집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 이면에 드러나는 서당, 농촌학교 등과 관계된 환경적인 조건들을 비롯하여 교사와 또래 관계 및 기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정서적인 반응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찾아내었다. 이후 학교생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려내어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어들로 범주화시켜 나가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에서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해나가면서 연구자가 가진 남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을 염두에 두고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장소의 개념으로서 상황, 그리고 이 연구가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해나가면서 연구자 스스로 지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당과 연구참여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당이 장소적으로 동일하고,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미 깊이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참여자와의 가까운 관계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연

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질문내용에 주관적인 내용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혹은 권위에 의해 연구참여자들이 거짓이나 억지로 대답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이나 대화를 마치고 나면 즉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다시 재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의 내용에 관해 연구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 작업을 함께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거이론, 내러티브 탐구, 사례연구 등의 질적연구들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깊이가 있는 질적연구 전문가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부점검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연구자의 해석에 관한 점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관해 고려하였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자기노출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 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내용은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게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리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Boykin & Schoenhofer, 1991;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출신 지역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자는 부모대신 연구참여자들을 돌보는 대리인이며 서당의 교사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어 이해상충의 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이 심리적 불편감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생활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와 권한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구의 과정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이들 부모 역시 연구자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연구참여자인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GIRB-A20-Y-0068, 2020. 09. 02).

III. 결과 및 해석

1.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내러티브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의 주제들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는 같거나 비슷하기도 하였지만, 학교에서의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 각각의 이야기를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박여림의 이야기

이야기 1: 왕따에서 친구로. 중학교 1학년 인 박여림은 학기 초에 교우들과 마찰이 잦았고, 같은 반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생활을 매우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따돌림을 주도하던 학생이 비행 문제에 연루되어 타지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박여림은 학교생활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함께 따돌리던 학생들이 마음을 돌려 박여림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박여림에게 학급의 친구들은 더 이상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좋은 친구가 되었다. 또래 관계에서의 변화로 인해 박여림은 학교생활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나누게 되었다.

옛날에는 저를 많이 따돌리던 애들이
데, 뭔가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점차 저를 미워하던 애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2020.09.21. 박여림 심층면담)

이야기 2: 절제하는 생활. 흥분을 가라앉히고 주의력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던 박여림은 또래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곤 하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박여림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자신은 남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친구들의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박여림은 학교에서 자신이 친구들에게 맞서서 갈등을 빚어낼수록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또래 관계를 포기해 나가고 있었다. 박여림은 친구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점차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약을 먹는 일로 애들이 몇 번씩 놀리기는 하죠. 신경이 쓰이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어차피 제가 이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고쳐야지 제가 또 화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2020.10.14. 박여림 심층면담)

이야기 3: 불편한 공간. 박여림은 평소 시설이 좋은 학교를 동경하였다. 학교 시설에

대해 늘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자주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박여림에게 교과교실의 여부도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교내의 컴퓨터실이 오래되어 여러 개의 컴퓨터를 작은 박스에 연결해 사용하다 보니 네트워크가 자주 끊겨 수업시간에 지장이 있어 컴퓨터실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인근 초등학교까지 걸어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학교요? 뭔가 시설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요. 한 마디로 도서실이나 이런 데는 책을 읽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에도 기가실, 영어실 이렇게 과목별로 여러 가지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 반이 많지 않아요. 과학실은 좋은데, 다른 거는 거의 안 좋아요. (2020.10.18. 박여림 심층면담)

이야기 4: 감사하고 따뜻한 선생님.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참여자들보다 선생님과 관계에서 다소 편안함을 느끼는 박여림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선생님들을 꼽았다. 지금 재학 중인 학교가 도시의 학교보다 훨씬 좋았던 점은 학교 선생님들이라며, 과거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경험들을 털어놓았다. 집 근처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듣거나 졸면 담임선생님이 긴 막대로 무릎을 때리거나 너무 엄격했다며 선생님이 정말 나빴었다고 이

야기하였다. 이에 반해 지금 재학 중인 중학교 선생님들은 성격이 좋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니까 아무래도 도시에서 다녔던 학교보다는 공부나 학교생활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좋으세요. 따뜻하고 성격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뭘 물어볼 때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고, 공부할 때도 그래요. 장난도 잘 받아주시고... 선생님들이 좋아요. (2020.11.21. 박여림 심층면담)

이야기 5: 나를 성장시켜준 학교. 감정이복이 심하고 학교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박여림은 과거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사고도 많이 치고, 친구 관계에서 다툼이 잦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상하였다. 문제행동을 자주 일으키는 바람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다 보니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서 만일 서당에 오지 않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지금처럼 자신이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박여림에게 주어지는 학교환경은 과거의 미흡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하고 사회적 관계를 많이 유지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애들이 도움을 많이 줬고 거기다가 선생

님들도 잘해주시고 뭔가 해주시려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2020.10.18. 박여림 심층면담)

이강한의 이야기

이야기 1: 이상한 아이들. 이강한은 가끔 학급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평소에도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서 즐겁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상한 애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하였다. 최근에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가 이강한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가져왔는데, 이 일로 교실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점심 시간에 선생님이 같은 반 친구에게 초등학교 급식소에 식사하러 가라고 재차 이야기하자, 점심을 먹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느냐며 선생님께 화를 내고 대들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생활에 착실한 이강한에게 이런 친구의 행동은 교우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 정상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분노조절장애인 애들도 있고. 근데 거의 다 그래요. 분노조절장애인 애는 별것도 아닌 거에 문 세계 닫고 막 피해 주고 시끄럽게 목소리 높이고. 교실에서 그건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요. (2020.09.26. 이강한 심층면담)

이야기 2: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를 마치고 서당에 돌아온 이강한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고 화가 많이 난 듯 씩씩거리는 모습이라 연구자는 이강한

에게 연유를 물었다. 이강한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부러먹는 양아치 같은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과 크게 싸웠다고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이강한에게 문제의 학생이 시비를 걸었고, 말싸움이 번져 결국 주먹 다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다행히도 주위의 친구들이 싸움을 말려서 선생님은 모르게 넘어갔지만, 평소 그 학생이 자신을 건드리면 자기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께 혼이 나니까 그냥 말로만 그만하라고 다그치고 싸우려는 행동을 멈추는 일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이강한은 행실이 좋지 않은 같은 학급의 친구들에 대해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양아치라고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을 몹시 싫어하였으며, 이들을 보며 자신은 절대 저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번 연도에 저희 반에 한 네 명, 다섯 명 정도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온 애들이 거의 다 썩 양아치 같은 애들만 와서 그 애들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가오잡고 그래서 꼴 보기 싫어요. (2020.10.12. 이강한 심층면담)

이야기 3: 심심한 곳.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강한은 심심하다거나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일은 재미있지만, 노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축구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말고

는 딱히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하였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후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여러 가지 교외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강한도 이에 답답하고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강한은 서당의 형들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허락을 받고 읍이나 시외로 외출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그런 날에는 생기있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번에 아침 일찍 컷차 타고 형들이랑 놀다 왔는데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다음번에는 친구들과하고 같이 가서 놀려구요. (2020.10.12. 이강한 심층면담)

이야기 4: 두터운 신임. 학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리 분별을 잘해서 학교에서 거의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이강한은 교사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마치 교내의 선도부처럼 학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찾으러 가거나, 교사의 부름을 받고 없어진 학생들을 근처에서 데려오기도 한다. 체격은 왜소하지만 다부지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 학생들이 이강한의 말이라면 마지못해 응하는 일이 많다. 이강한은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비행이나 학교폭력문제에 휘말리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학교생활에 대체로 잘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수업 도중에 쌤이 불러가지고 나가게 해서 수업시간에 수업 끊기게 하고. 저번에는 수업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창문을 봤는데 개들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선생님들 담배 피우는 곳인데. 쌤이 저보고 잡아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막 이유없이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라간 애가 제 차비 훔쳐가지고 저번에 탈출했던 애거든요. 전부터 피해주지 말라고 계속 뭐라 했었는데, 계속 그래 가지고 말싸움 크게 했어요. (2020.11.29. 이강한 심층면담)

이야기 5: 차별이 없는 선생님. 과거에 학생들 간의 차별 문제로 인해 교사에게 상처를 받았던 이강한은 교사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예전 학교에서 차별이 많이 심했던 것 같다고 이강한은 회상하였다. 이강한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강한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의 자질은 공부를 잘 가르쳐주거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도 아닌 차별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었다. 이강한은 그런 면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차별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다 상담도 잘해주시고, 차별

도 안 하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2020.11.29. 이강한 심층면담)

최인기의 이야기

이야기 1: 두 종류의 친구들.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은 지역민의 자녀들과 서당에 위탁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최인기는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면서 아무 대책 없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하였다. 최인기는 자신도 친구들과 같이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입장이지만 문제행동을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때때로 서당 일과에 맞추어 생활하는 자신에 비해 자유롭게 생활하는 지역민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같이 어울려 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에 고마울 때가 많으며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하였다. 상반된 두 종류의 친구들 모습에서 최인기는 학교가 늘 소란스럽고 안 좋은 애들이 많아 지역민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솔직히 학교에 말 안 듣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좀 서당이 아니라 여기가 집으로 자란 애들은 착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에 징계받은 애들도 많고 반에 안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쯤... 맨날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020.12.03. 최인기 심층면담)

이야기 2: 내가 후배였던 시절. 중학교 3학년인 최인기는 과거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다니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하였다.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당시 학교에 비행 청소년인 선배 학생들이 다수였고, 복도를 다닐 때도 무서워서 고개를 꼭 숙인 채로 다녀 억울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간 일이 많았다고 하였다. 선배들과의 일화에서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급생인 같은 반 친구들도 이유 없이 형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선배가 되고 나서 1학년 때 형들이 했던 것처럼 안 하고 동생들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후배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에 위계질서가 있었어요. 저희가 후배였던 시절에는 무서웠어요. 양손 잡고 그냥 고개 꼭 내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처음 봤을 때 90도로 인사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제가 1학년 때 진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갑자기 뺨 싸대기를 후리는 그 형은 진짜 이해가 안가요. 막 서있다가 그냥 욕 들어먹고 뺨 맞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2020.10.20. 최인기 심층면담)

이야기 3: 우리에게 좀 더 엄격하세요. 최인기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

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았다. 한번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눈치였다. 체육 시간이 끝난 뒤 선생님의 지시로 창고정리를 하느라 다음 수업시간에 3분 정도 늦었는데, 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창고정리를 하고 왔다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지각란에 싸인을 하라며 선도부에 넘긴다고 하더라고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 외에도 사소한 일로 기본 품행에 어긋났다면 벌점을 매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짜증이 난다고도 말하였다. 최인기는 선생님들이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엄격하게 지도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선생님들의 행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은 그래도 다 같은 학생이니
까 그렇게 하시는데, 서당에서 다니는 애
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
요. 집에 있는 애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
려고 하는 건 맞는데, 서당 애들한테 더
많이 세게 뭐라고 하셔요. (2020.09.19. 최
인기 심층면담)

이야기 4: 학교생활의 활력소. 최인기는 이
해심이 많고 원만한 성격으로 학급의 동성 친
구들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특히 이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
라 최인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기의
건전한 이성 교제는 친밀감 형성과 더불어 인
격 형성을 도모하며, 또래 간의 인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최인기는 이성 친구의
지지와 우정을 통해 자기반성을 비롯한 심신

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이성 교제는 자칫하
면 성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는 서당의 훈장이나 학교 교사들
의 염려를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인 주의와 관
심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최인기 역시나
이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터라 이성
교제에 있어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
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살면서 배워가는 게 많잖아요.
그것에서 안 좋은 것들도 얻어가고, 좋은
것들도 얻어 가는데. 제가 힘든 일이 있
을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생각이 안 나
고 행복해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편해
지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쁠 때 여자친구
를 보면 그냥 다 해소되는 것 같은 느
낌이랄까... 저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2020.11.27. 최인기 심층면담)

이야기 5: 초집단사회. 동갑내기 학급 친구
들을 비롯해 손아래 학년인 동생들에게도 최
인기는 좋은 형이자 친구이다. 가방에 좋아하
는 책을 넣어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명언을
읽어주는 게 취미인 최인기는 늘 연구자에게
자신은 초집단주의 사회를 싫어한다고 이야기
하곤 하였다. 친구들이 여러 곳의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다 보니 가끔씩 같은 서당에 있는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서당
의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오해하는 일들로 싸
우기도 한다며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이야기 하

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간에 무리를 지어서 뭉쳐 다니다 보면 일진과 같은 비행청소년 집단을 만들고, 그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인기는 또 자신이 학교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반 친구들이나 후배들 모두 상관없이 친구라고 부른다며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약하다고 해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은 초집단주의 사회인데, 저희 학교는 제가 그걸 깼어요. 초집단주의로 안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좀 얘기해도 남자애들 모두 다 같이 끼여가지고 이야기하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학교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어요. (2020.10.19. 최인기 심층면담)

김성실의 이야기

이야기 1: 여자가 대장이에요. 김성실은 교내 학생들의 모습에서 여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남학생들은 무조건 인기가 많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남녀공학이라 학교 분위기가 교우들간에 편이 갈리게 되면 여학생들과 같은 편이 된 남학생들이 잘난 체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의 일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이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저지르기 때문에 김성실은 여학생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는 학

년의 구분이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학교에서 제일 문제인 게 여자가 대장이에요. 여자랑 같이 노는 사람은 무조건 잘나게 되었어요. 전학 간 애들 보면 애들 막 부러먹고 욕하고 그러는데, 다 여자애들이랑 친해서 남들이 부럽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부러움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랑 친했던 애들 중에 70~80%는 다 술 담배를 해요. 그런게 좀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술 담배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속 부러움을 의식하다 보니까 더 잘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술 담배도 하고. (2020.10.05. 김성실 심층면담)

이야기 2: 같이 성장하는 우리.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해서 김성실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당에서 생활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처럼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생각하였다. 학교 친구들의 모습에서 때로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민의 내용과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아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에 대해 더 가엾고 안쓰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김성실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서당의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비롯하여 선배 학년의 형들과 고민을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친구들을 보면 저랑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치 보는 애들은 그렇지. 그리고 형들은 좋아요. 형들한테 칭찬 들을 때 행복해요. 형들 덕분에 많이 컸거든요. 쫘 많이 찌질한 단계에서 조금 찌질한 단계로 성장했어요. (2020.10.12. 김성실 심층면담)

이야기 3: 일부러 봐줘요. 교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김성실은 불만이 많았다. 학교에서 아무리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를 종이에 적어내더라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징계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였다. 과거 학교폭력의 주동자인 동급생으로 인해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김성실과 동급생 친구들 몇 명에서 주축이 되어 후배들과 징계위원회가 열리도록 모의한 적이 있었으나, 선생님들이 주동자인 학생을 감싸주어 종래에는 전교생이 학교폭력 주동자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김성실은 이러한 일들에 관해 교사들이 서당이 아닌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부러 봐준다고 생각하였다.

집에서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애가 있어요. 개가 애들 막 부려 먹고 부하? 그런거 시키고, 후배들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개한테 하지말라고 했었는데, 개가 싫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학교폭력 설문조사 할 때 어떤 애 한명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찰도 오고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잘 처리를 안 했

단 말이에요. 일부러 봐주고, 제대로 조사 안하게 하고. 아마 일이 더 커지면 학교 측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2020.11.03. 김성실 심층면담)

이야기 4: 반장이라는 무게감. 김성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책임을 다하였으며, 계획성 있고 꼼꼼한 성격인지라 학업에 있어서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다. 이러한 면모로 또래들이나 교사들에게 모범생 혹은 우등생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중학교 재학기간 내내 학급의 반장을 도맡아 하였다. 그러나 진취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성격 탓에 학급에서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김성실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 뒤쳐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학급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더해져 김성실에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작용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회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듣고, 시험도 올 백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반장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고, 할 일도 더 많고 선생님도 많이 뭐라고 하시고... 공부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안좋은 생각만 많이 든 것 같아요. (2020.12.12. 김성실 심층면담)

이야기 5: 신경쓰지 않아요. 김성실은 성격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도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교내활동을 비롯하여 학교의 대외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김성실은 지역 내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김성실은 서당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동정 어린 시선을 또래들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김성실은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해 다른 연구참여자들보다 서당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었고 긴 시간 만큼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제 또래 다른 학교 애들이 저번에 중국에 갔었을 때, 제가 서당이라고 이야기하니깐 불쌍하다면서 자유도 없고 우리처럼 폰도 못쓴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서당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아예 걱정이 없었거든요. (2020.12.05. 김성실 심층면담)

2.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경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중학교 생활의 경험을 따라가면서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중학교 남학생들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서 중요한 범주들이 되며 내러티브의 전경이 된다. 내러티브에서 시간성, 공간성, 사회라는 다각도의 조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이 과거 학교경험에 대한 상처를 안고 청학동으로 와서 불편한 시설과 환경에 놓여있는 중학교에 맞춰가면서 생활하지만 학교와 자신에 대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통해 부러움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생활하기, 서당별로 나뉘는 또래집단, 위기의 학생들이 모인 공간에서 균형잡기,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해되는 학교 선생님,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6가지 의미들을 형성하였다.

부러움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생활하기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는 부모로부터 주소지를 옮겨와 청학동 서당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부모와 함께 실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지역민의 자녀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교내 학생들의 구성이 이처럼 정확히 이분되어 나누어지다 보니, 학생들 간의 사이에서도 속칭 “집인 애”와 “서당인 애”로 나누어져 불리고 있다.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듯이 이들의 일과나 생활양식도 서로 비슷한 듯 매우 다르다. 시간이 교차하는 학교생활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이 부여되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의 사용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다. 또한, 등·하교 방식에 있어서도 버스시간에 맞춰 먼 거리를 30분씩 오고가는

것과는 달리 집 근처에서 편안히 학교에 다니는 점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자녀들은 자연스레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래 문화에서도 부러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경험하지만 자신이 부러움을 느끼거나 이러한 정서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한다(Van de Ven, Zeelenberg & Pieters, 2010; Vecchio, 2005). 연구참여자들 역시 학교생활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집에서 다니는 애들 보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부럽기도 해요. 살짝. 그냥 부모님이 있다는 게. 그리고 저희랑 달리 휴대폰을 가지고 오고. 더 자유로워요. 그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2020.09.14. 박여림 심층면담)

학교에서 집에 있는 애들 폰 하는 거 맨날 봐요. 폰 있는 애들께 보여줘서 저도 봤는데, 보면서 부러워했던 말이에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저걸 왜 부러워했지? 그러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2020.09.03. 김성실 심층면담)

학교가 쫓 멀다보니까 규칙적인 거에 맞춰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집에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8시 반쯤이나

오는데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거 보면 애들이 부러워요. (2020.10.16. 최인기 심층면담)

서당별로 나뉘는 또래집단

지리산 청학동 서당은 단일한 서당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교육이념에 따라 다양한 서당들이 존재한다. 서당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한 곳의 서당에 모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서당들로 나누어진다. 서당이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같은 반 교우일지라도 학교에서의 시간을 제외하면 같은 서당에 소속된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서당별로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비롯하여 일상의 사소한 일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같이 생활하는 서당의 친구들이나 또래의 형들에게 털어놓기도 하며, 서당 내에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간다(김유나, 조한익, 2020).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소속된 서당의 문화나 환경에 대해 비교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다른 서당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당별로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학교에서 교우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편 나누기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다른 서당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서당에 강한 소속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도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다양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서당 애들이 다른 서당 애들 뒷담화
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편이 갈리는데 그것도
비밀로 하고 학교에서는 친한 척 하는거
죠. (2020.10.05. 김성실 심층면담)

저희가 막 자랑하고 다녀요. 애들보고
우리 서당 빨리 오라고. 다른 서당은 핸드
폰도 못하고 하동도 아예 못 가는데
저희 서당은 자유롭잖아요. 어떤 서당에
서는 현장체험학습 가거나 그럴 때도 핸드
폰 잘 안 줘요. (2020.10.29. 이강한 심
층면담)

OO서당은 애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킨대요. 주말에 시험기간 때 아침 9시
에서 저녁 9시까지 시켜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평가평가 논다는 거죠. 억지로
시키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2020.10.19. 최인기 심층면담)

위기의 학생들이 모인 공간에서 균형잡기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
우들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
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일반적인 중학교의 학내 또래 구성원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각종 청소년 문제에 연루되
어 온 경우가 많고, 전학을 오고가는 학생들
이 많은 터라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
기가 어렵다. 또한, 전교생이 채 7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의 농촌 중학교이기 때문에 학년

간의 명확한 구분없이 학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가 쉽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수도
권을 비롯하여 충청, 영남, 호남, 제주권 등
전국 각지에 해당되며 서당으로 유입되어 오
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아 학교에 전학
을 와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
적으로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교와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어려서부터 비행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 요인과는 관계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비행을 저지른다는 입장과 학교에서의 경험에
의해 비행성향이 더 악화된다는 입장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Wilson & Hernstein, 1985),
학생들이 경고나 퇴학과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고 사회적
통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격
적인 반항과 욕구 분출을 하게 된다고 하였
다(Shichor & Bartollas, 1990).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재비행이 계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도 과거 학교에서 징
계를 받거나 부적응을 사유로 타의적으로 서
당에 유입되어 지금 재학 중인 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경적으로 통제된
여건에 처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근본
적인 불만이 쌓여가고 이를 해소할 만한 적절
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불편한 거는 저희 학교가 전국구잖아
요. 비행기 타고도 오는데. 근데 서당 애
들이 대부분 썸 문제가 있어서 오니까
학교가 소란스럽잖아요. 징계받은 애들도
많고. 반에 썸 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쫘... 근데 진짜 정신머리 없
는 그냥 깡패소굴이에요. 저희 학교는.
(2020.10.16. 최인기 심층면담)

요새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애들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몰래 슈퍼가서 담
배랑 과자 훔쳐가지고 학교에서 피고. 그
래가지고 두 명은 10일 출석정지 먹고
한 명은 7일 출석정지요. 그런 애들 보면
한심해요. 그냥 학교 다니면 되는 걸 굳
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걸 하니까 별
로예요. (2020.11.26. 이강한 심층면담)

저번에 점심시간에 우리 반 애랑 어떤
형이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형한
테 맞았는데, 개가 너무 화가 나서 학교
를 진짜 완전 부술 정도로 진짜 화를 많
이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도 왜 잡냐고 대들면서 욕하고 그래가지
고 그때 완전 학교가 난리나고 그랬었어
요. 근데 개를 보면서 그냥 재는 왜 저럴
까라는 생각보다는 나쁜 친구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2020.10.14. 박여림 심
층면담)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식량 작물을
주업으로 생산하는 농촌 지역에 소재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농촌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
교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도시에서
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참여

자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문화적인 혜택
을 누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
여자들이 농촌환경에서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
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김성수,
김경준, 전경숙, 2000). 연구참여자들은 농촌지
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환경에 관해서 불편함
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환경 속에서
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
러한 부분이 한 편으로는 불편하지만, 심리적
으로 편안함을 준다고 보았다.

도시 학교 보면 학교 옆에 편의점도
있고 막 pc방도 있는데, 단점은 놀 게 없
어요. 그리고 학교에 매점도 없어요. 그
런 게 불편해요. (2020.10.12. 김성실 심층
면담)

놀 게 없으니까 심심해요. 나중에 읍에
나가면 머리카락도 자르고 pc방도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 올려고요. 한 번씩 놀러
나갈 때 친구들과하고 스트레스 풀어요 그
냥. (2020.11.26. 이강한 심층면담)

아 저는 공기가 좋은 걸 진짜 많이 느
껴요. 여기서 공기를 마시다가 집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 순간 기침이 진짜 많이
나요. 그때 공기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
었어요. 그리고 계곡. 도시는 계곡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계곡
이 있으니까 친구들과하고 놀 수 있어서
재밌어요. (2020.12.10. 최인기 심층면담)

이해되는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다정한 존재이자 때로는 엄격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인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사와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스승으로서 공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교내 학생들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처우에 관해 불만을 호소하였다. 지역민의 자녀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 징계처분에 있어서 서당의 학생들은 전학이 권고되는 한편 지역민의 자녀들은 징계의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당하게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교사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감정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구자은, 2000; Forisha-Kovach, 1983). 청학동 서당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사들로부터의 온정과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제일 짜증나는게,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징계를 세 번 먹으면 바로 강제전학이란 말이에요? 쓰리아웃젠데.

집에서 다니는 애들은 계속 징계를 먹어도 전학을 안 가요. 집에 있는 애들은 강제전학을 가면 갈 데가 없는데, 서당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가도 만 데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서당애들을 뭔가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애들보다 특히 더요. (2020.11.05. 김성실 심층면담)

애들이 사고를 치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혼내셔요 그냥 말로. 선생님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드실 것 같고. 거기다가 애들 가르치시는 것도 그런데, 문제까지 일어나니까 그게 좀 그럴 것 같아요. (2020.11.21. 박여림 심층면담)

담임선생님이 힘들다고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다 담임쌤 말 좀 들으라고 하고. 너희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고 하시고. 선생님이 진짜 좋은 쌤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2020.11.29. 이강한 심층면담)

진로에 대한 고민

학년이 서로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같은 형태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의 경우 진학을 앞두고 부모와 충분히 상의한 뒤 각각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

성화 고등학교와 같이 각자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 진학을 선택하면 되지만,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서당에 계속 남아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인지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교 진학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고, 때에 따라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 환경이 자녀를 길러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거취문제를 비롯한 상급학교 진학 후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학생들이 고민하는 일들이 매우 흔히 나타난다(엄경순, 2004). 연구참여자들 역시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에 가면 애들이랑 공부 실력도 비슷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요. 그냥 빨리 적응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두려워요. 고등학교도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쉬엄쉬엄하다가 거기서는 공부를 빠르게 해야 하니까. (2020.11.12. 김성실 심층면담)

고등학교는 어차피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적응을 하는 건 걱정이 돼요. 기숙사나 그런 곳을 갈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가면 거기서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또 공부나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2020.11.18. 박여림 심층면담)

시험이 끝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좀 빠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번 연도부터 항공계열이 높아져서 걱정이예요. (2020.12.13. 최인기 심층면담)

저는 아직 꿈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나 변호사 그런거 할려고 했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요. 아빠가 저희 집 있는데 학교를 가려면 두 곳이 있는데 거기 말고는 안 보낸대요. 근데 거기 두 군데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2020.11.29. 이강한 심층면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방법(Clandinin & Connelly, 2000)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대화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러티브 풀어내기를 어떤 의미주제로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조화하였다. 구조화 이후 의미주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선정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3차원적 공간의 내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박여림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과거 도시의 학교생활에서 받았던 마음 속 깊은 상처들을 꺼내어 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가 경험한 서당에서의 학교생활은 치유의 장소이자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박여림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였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이강한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서당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래 학생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동등한 친구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교우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이강한은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이강한에게 학교는 그저 끊임없는 불만과 스트레스를 양성해내는 곳에 불과하였다. 이강한에게 학교는 졸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인내의 장으로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최인기는 서당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시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비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였다. 최인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이들과 분리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학업보다는 교우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최인기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해해주는 또래 친구들은 서당이나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다. 연구참여

자 김성실에게 학교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곳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김성실에게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은 또래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성실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으나, 갈등상황에서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고자 친구들과 협력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살아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인지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에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탐구된 경험들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나타난 의미는 부러움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생활하기, 서당별로 나뉘는 또래집단, 위기의 학생들이 모인 공간에서 균형잡기, 불편함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해되는 학교선생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부적응, 비행, 가정문제 등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문제등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부재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나는 부모님이 여기 안계시니까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전 생활과는 다른 청학동 서당과 농촌중학교의 삶은 단조롭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도시속에서 바쁘게 경쟁하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또래들과 다르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시골 나름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과 가족,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더 느그러워지고 이해심을 가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비행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학교가 끝나가면서 청학동 서당을 떠나 다시 경쟁적인 학교로 돌아가고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진학, 진로 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연구문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정당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 동안 연구자 자신이 내러티브 공간 안에서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끊임 없이 반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연구자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들려주는 삶의 발자국을 충실히 따라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거의 연구자는 학교에서 남학생

들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 그저 철없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혼을 내거나 가르치려 드는 것이 전부였지만, 연구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을 다양한 감정들과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도 학교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비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학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 걸어가게 될 삶의 여정에 대해 고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실제적 정당성 측면과 관련해서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는 일반적인 중학교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분포가 청학동 서당에 몰려있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과거 학교문제나 비행 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의 강요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오는 일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거나 학교 폭력 혹은 흡연이나 절도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지속적으로 교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전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행이나 유해 물질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으로 인한 학교부적응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Gasper, Deluca, & Estacion, 2010),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학동 서당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보호자는 서당의 훈장이나 관계자들이며,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세심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서당 간의 긴밀한 조력관계가 요구된다.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을 둘러싼 학교환경은 소규모 농촌학교로서 대도시의 학교들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관해 열악한 시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 학업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별지도가 용이하고 정서적인 관계형성이나 지역사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점이 있으나,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활동이 어렵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극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보고되고 있다(이정선, 최영순, 2007; 최준렬, 2008). 이처럼 인구학적이고 지역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청학동에 있는 중학교와 도시학교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교육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청학동에서 거주하며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학업과 진로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 교사교육과 서당 및 가정과

의 연계 활동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학업 및 진로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피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라는 중요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변화를 겪어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한 발짝 더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연구자 역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청학동 서당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들(공환, 2005; 곽재용, 2010)을 비롯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남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김유나, 조한익, 2020)가 있었지만,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들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성별에 따라 경험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여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학교생활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경험 과정에 관해 탐구하였다. 하지만 청학동 서당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 학교나 서당에서의 비행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문제행동에 직접 가담하기보다는 주변인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공 환 (2005). 청학동 서당교육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재용 (2010). 청학동 서당 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남권문화*, 20, 407-492.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김경준, 전경숙 (2000). 21세기 농촌 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유나, 조한익 (2020).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인간발달연구*, 27(1), 85-115.
<http://dx.doi.org/10.15284/kjhd.2020.27.1.85>
- 김태환 (2004). 전통 서당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8).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석훈 (2009). 서당과 현대 초등학교 인성교육 비교.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경순 (2004). 농촌과 도시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준수 (2012). 서당교육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최영순 (2007). 소규모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일상성 연구. *교육과학연구*, 38(2), 49-79.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 범죄행위에 대한 중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http://doi.org/10.35151/kyci.2016.24.2.007>
- 장애경, 이지연 (2010). 청소년의 모애착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4), 21-30.
- 정찬호 (2017). 紫巖日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서당의 교육.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렬 (2008).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Boykin, A., & Schoenhofer, S. O. (1991). Story as link between nursing practice, ontology, and epistemology.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3(4), 245-248.
<http://doi.org/10.1111/j.1547-5069.1991.tb00680.x>
- Clandinin, D. J. (2013).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CA: Left Coast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84).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t bay street school: Ritual, personal philosophy and image. In R. Halkes & J. K. Olson (Eds.), *Teacher thinking: A new perspective on persisting problems in education* (pp. 134-148). The Netherlands: Swets Publishing Servic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85).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nd the modes of knowing: Relevance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E. Eisner (Ed.), *Learning and teaching the ways of knowing* (pp. 174-19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ndinin, D. J., Huber, J., Huber, M., Murphy, M. S., Murray-Orr, A., Pearce, M., & Steeves, P. (2006). *Composing diverse identities: Narrative inquiries into the interwoven lives of children and teachers*. New York: Routledge.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0). Narrative understandings of teacher knowledge. *Journal of Curriculum and Supervision*, 15(4), 315-331.
- Denzin, N. K., & Lincoln, Y.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28-140.
<http://doi.org/10.1037/0893-3200.8.2.128>
- Forisha-Kovach, B. (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New Jersey: Scott Foresman.
- Gasper, J., Deluca, S., & Estacion, A. (2010). Coming and going: Explaining the effects of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on adolescent delinquency. *Social Science Research*, 39(3), 459-476.
<http://doi.org/10.1016/j.ssresearch.2009.08.009>
- Laird, R. D., Petti,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4), 413-437.
<http://doi.org/10.1177/0272431699019004001>
- Patton, M. Q. (200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CA: Sage.
- Shichor, D., & Bartollas, C. (1990). Private and public juvenile placements: Is there a Difference?. *Crime & Delinquency*, 36(2), 286-299.
<http://doi.org/10.1177/0011128790036002007>
-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2010). Warding off the evil eye: When the fear of being envied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11), 1671-1677.
<http://doi.org/10.1177/0956797610385352>
- Vecchio, R. (2005). Explorations in employee envy: Feeling envious and feeling envied. *Cognition and Emotion*, 19(1), 69-81.
<http://doi.org/10.1080/026999304441000148>
- Wilson, J. Q., & He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1 차원고접수 : 2021. 04. 17.
수정원고접수 : 2021. 05. 14.
최종게재결정 : 2021. 06. 27.

Narrative Inquiry into the School Experience of Mal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Cheonghak-dong Seodang

Kim, Yu Na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school experience of mal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Cheonghak-dong Seodang through a narrative inquiry. We selected four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Cheonghak-dong Seodang who were believed to be able to convey their experience vividly through research puzzle.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research journals, field note, and transcripts from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data with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in mind. Through the narratives released by the participants, living in a classroom with envy, peer groups by individual Seodangs, balancing in a space of crisis, feeling comfortable in discomfort, understanding school teachers, and concern about career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ir middle school adjustment process and raises social consideration for the students.

Keywords: Cheonghak-dong Seodang, school experience, narrative inquiry